

# “어려운 이웃 손발돼 희망 주고파”

## 40여년 교통약자 차량봉사 ‘광주시민대상’ 수상

### ■ 박 용 구 광주시곰두리봉사회장



“장애인들에게 꾸준한 봉사를 통해 신뢰와 교감을 쌓으면 봉사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 주죠.”

40년 넘게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온 박용구 광주시곰두리봉사회장이 사회봉사분야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했다.

박용구 회장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봉사 등 장애인 봉사 활동을 40여년 넘게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회장의 차량봉사는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걷지 못하는 학생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그들이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에 무슨 봉사냐고 핀잔도 많이 들었다.

특히 집안 형편이 어려울때도 흔들린 마음을 잡아주고 박 회장을 지지해준 건 그의 부인, 문양례 여사다. 문 여사는 목욕탕과 식당에서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렵게 모은 돈을 박 회장이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기꺼이 내 놓았다.

박 회장은 “1970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차량도 귀하고 경제도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장애인들이 무료로 태워다준다는 것은 예전 6여년

동안 장애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약속이다”고 소회했다.

박 회장은 지금도 장애인 단체 어른들을 모시고 1년에 네차례 나들이는 물론 무료식사봉사, 문화예술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봉사하는데 어려움 적지 않았는데 그럴때마다 아내의 힘이 컸다”며 “앞으로도 빛진 자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의 손과 발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서구, 규제개혁 점검회의

광주시 서구(권한대행 박만영)는 4일 오전 상황실에서 각 실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조례 정비 점검 및 신규 규제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북구 안전총괄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광주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회,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원들은 4일 양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 성윤모 특허청장, 광천초 발명교육센터 방문

성윤모 특허청장은 4일 광주 광천초등학교를 방문, 교사들의 발명교육센터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 광주대 국제교육원 ‘유학생 GUK-POP’ 성료

광주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최근 백인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외국인 유학생 ‘GUK-POP 대회’를 가졌다. 이날 경연 대회에는 학교 학부생과 어학연수반 등 유학생 10개 팀이 참가, 베트남 유학생 홍응옥(대학원 한국어교육과) 학생이 태양의 ‘눈, 코, 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 전남농기원, 쌀 가공식품 경진대회

### (주)쌍죽·구례 도올바이오푸드 등 영예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6일 “2018년 쌀 가공식품 개발 경진대회에서 나주 소재 (주)쌍죽이 출품한 제품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속적인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산업 활성화와 가공식품 개발 등 새로운 소비층 확보를 위해 개최했다.

광주·전남 소재 9개 업체 16개 제품이 참여, 서류심사·현장경진 등을 통해 (주)쌍죽을 비롯한 구례 도올바이오푸드, 나주 명성제분(주) 3곳이 선정돼 전남도지사

상장과 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주)쌍죽 서동교 대표는 “영세한 쌀 가공식품 개발 업체가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쌀 제품을 개발해 쌀 소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쌀누룩을 활용한 쌀누룩막걸리, 쌀누룩고추장 등 기술을 개발하고 쌀 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을 통해 쌀 소비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육군 31사단장 이취임식 열려

### 소영민 소장 “지역민과 함께 하는 총장부대 구현”

육군 제31보병사단장 이취임식이 4일 오후 사단 사령부 대연장에서 열렸다. 지역기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초청인사, 부대 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취임식은 국민의례, 명령낭독, 부대기(지휘권) 이양, 열병, 작전사령관 훈시, 이·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임하는 권삼 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적과 싸워 이기는 정예 사단 육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교육훈련과 기본에 충실한 임무수행 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단의 전투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예비군 육성우수 대통령 부대표장, 중무훈련 유공 국방부장관 부대표장, 대테러작전 우수 합참의장 부대표장을 수상한 바 있다. 신임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영민 소장은



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88년 학사장교11기로 임관해 6사단 19연대장과 육군본부 인력획득과장,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학사장교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사단장에 진출했다.

소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안전과 번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총장부대’를 구현하겠다”며 “항토사단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군 본연의 임무인 ‘적과 싸워 이기는 정예화된 총장부대’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찬 기자

## 신임 전남 농업박물관장에 이종주씨 선임



신임 전남도 농업박물관장에 이종주(53) 씨가 선임됐다.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임 농업박물관장으로 추천된 이종주 씨를 관장 최종 후보로 선임,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무등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논설실장을 역임한 신임 이 농업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전남 농업박물관은 1993년 영암군 삼호읍에 개관했으며 농경문화관·남도생활민속관·쌀문화관 등 전시관과 농경문화체험관·농업테마공원 등을 갖췄다.

## 6·13 지방선거 레이다 D-8

### 공영민 “월 10만원 농어민 수당제 도입”

공영민 더불어민주당 고홍준수 후보는 4일 “농촌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민 수당제’를 도입하고 농번기 농촌 인력부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흥지역 1차 산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들의 수익도 계속 줄어 들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공 후보는 “농어민수당제는 농어촌 마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마을에 거



주하며 손수 농사를 짓는 중소농업인이나 저소득 어민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귀농인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공 후보는 또 “파종, 관리, 수확 등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기계화 및 자동화를 서둘러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 천경배 “흑산 공항 반드시 필요”

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최근 흑산면을 방문해 “신안군 대부분의 지역이 항호 연륙·연도교로 연결되면, 흑산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해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는 “흑산공항 개항에 맞춰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거점형 항공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형 항공회사는 흑산도 공항을 거점으로 소형 항공기로 국내외 동북아 주요 도시를 오가는 에어택시, 예



어서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자율주행 여객선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안간에도 여객운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현재 1.0km인 시계제한 범위를 0.5km로 완화하는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 이충식 “마이스산업 장흥 신성장 동력으로”

이충식 무소속 전남도의원 후보(장흥1)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골목 없는 고부가가치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산업에 적극 투자해 장흥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합의학컨벤션센터 기반 한방·의약 특화 국내(기업)회 및 국제회의 유치 ▲복재산업연구센터와 우드랜드, 장흥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각종 학술대회, 포럼, 심포지엄 개최 ▲2020년 완공예정 장흥소방안전타운 중심 국내외 소방관련 기



관회의 및 세미나, 각종 교육 행사 유치를 공약으로 세웠다.

이 후보는 “마이스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 인지도 향상, 인프라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며 “장흥을 명실상부한 지역특화 중소형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흥=이육현 기자

### 박우량 “실뱀장어 잡이 적법 활성화”

박우량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뱀장어 잡이는 신안군 지역의 전통 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적법하게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실뱀장어 잡이 배 지붕에 관리코드 번호를 부착해 하고 드론을 통해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실뱀



장어잡이의 신규 진입을 신안군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노후화된 실뱀장어 배는 신안군에서 매입해 4~6척 규모를 하나로 조립해 유료 낚시터로 전환시켜 자연스러운 감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 신우철, 후보자 자질검증 대담회 참석

신우철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완도군수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했다.

박삼재 후보가 참석하지 않아 단독으로 대담을 한 신우철은 당면현안인 환경변환소 설치, 전복산업, 인구 감소 및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비롯한 민선 7기 군정 전반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 밝혔다. 대담회는 목포대학교 신승



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우철 후보는 “군민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박삼재 후보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강인규 “나주시정 시민행복 최우선”

강인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는 최근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상임대표와 정책협의를 갖고 전국 최초로 ‘주민행복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명칭으로 협약 체결을 했다.

강 후보는 박진도 상임대표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행복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 민선7기 나주시정의 공극적 목적을 시민행복의 증진에 두고 실현키로 했다.



강 후보는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 ‘행복지표’ 개발, 민관이 함께 하는 주민의 주권에 의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칭)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약속했다. /나주=신승기 기자